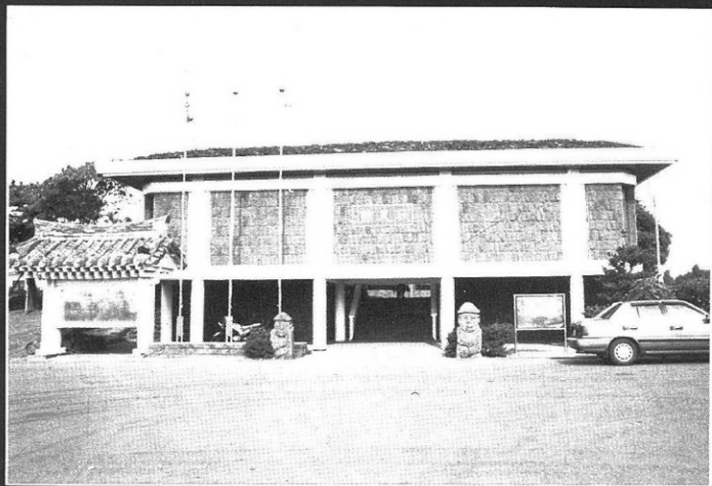


第 22 輯

禮山文化院報



烏山縣 · 任存城 · 今勿縣

希望 찬 地方自治文化의 해

— 郡民의 共感帶를 形成해야 한다 —

새해 乙亥의 해는 우리나라가 地方自治를 맞는 벽찬 希望의 해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經濟的인 自立度가 어려운 상황에서 自治制 實施는 그 時期가 상조인성도 싶다. 그러나 政治的으로 文民政權下에서 斷行한다고 한다. 이는 與件과 環境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意志를 가지고 執行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민정부에서 指向하고 있는 文化行政이 지방자치제하의 지방문화행정에서 어떻게 具現될지 至極히 念慮가 된다. 이것은 中央政府가 意圖하고 있는 文化政策이 집행과정에서 지방행정까지 미치지 못할수도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관의 良識이 어떠하나 그 어느 정도나 하는 문제로, 종전의 妄自尊大의 意識구조에서 脫皮한 태도에서 만이 올바르고 또한 문민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와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것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임으로는 地方化時代가 到來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대비도 한다고 한다. 그 地方化時代는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개념이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所知에서 임으로만 소리 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 하면 오히려 拙計만 나오게 마련이다. 또한 행정상의 妄悖가 뒤따르게 마련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의 民間文化 단체에서도 배전의 연구와 地方自治에 있어서의 文化, 地方民을 爲한 文化事業, 또는 行事に 있어서 수용태세를 갖추어 대비 해야만 한다. 그래서 純粹한 民間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地方에서의 共感帶를 形成 해야만 地方民을 爲한 文化가 이룩해질 것이다.

自治制가 實施되는 希望찬 첫해 乙亥年 부터는 地方的 文化가 꽃피워 나가야만 한다.

禮山文化院長 李 恒 複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예산 구현

예산군수 장 우 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 1월 1일자로 고향인 예산군수로 취임한 장우용입니다.

다사 다난 했던 1994년 한해도 저물고 우리에게 부푼꿈과 새희망을 가득담은 199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희망찬 새해에 온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더불어 새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의지를 굳건히 다지게 한 의미깊은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700여 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세계를 향해 나래를 펴는 용지를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정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우기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왔던 우리농민은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과 유통시장개방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시름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매일수룩 우리군민 모두는 힘을 모아 슬기롭게 역경을
대처해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굳건한 응전의 자세로
우리가 처한 역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금년이 국제화, 세계
화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는 알차고 의미있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나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3차년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를 통한 역경 극복의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은 국정 최일선에서 지방자치에 부여된 시
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12만 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가 처한 역
경을 극복 해내려는 의지가 충천할 때 우리군은 보다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성원해주신 정성이 추호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서해안 배후 관광 휴양 도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나가
고 더불어 풍요롭고 복된 고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
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正義社會 實現

— 활기찬 앞날 기약 —

예산경찰서장 최 병 일



눈부신 햇살이 꿈과 희망을 안은채 올해년의 새아침.

예산군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개혁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실추되었으며, 물질만능의 사고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범죄와 무질서 부조리의 갈등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제 사회병리 현상으로 분출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줄것인가를 생각하고 생활해 나갈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며, 활기찬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움 없이 치안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 범죄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헌신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한 근본적으로 범죄가 근절되리란 기대는 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힘쓰고 범죄자체를 줄여보려는 끈질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범죄꾼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회와 연대적인 자구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고발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고 범죄 제어력으로서 감시의 눈빛이 사회도처에 깔려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범죄꾼들은 반드시 불감혀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공권력의 위엄이 서야만 범죄 추방은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예방과 소탕은 경찰의 기능에만 의지하기보다 군민 각자의 자경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은 사회와 시민없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사회와 시민은 경찰의 활동 없이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회구조와 역사가 일맥 상통하며 경찰은 시민이며 시민은 또한 경찰인 것입니다.

시민의 협조 없이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는 불가능하며, 군민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범죄가 예방되고 질서가 유지되며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될수 있습니다.

예산 군민은 옛부터 의롭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범죄에 대하여는 용인해서도 안되고 방관자적이고 냉소적자세를 가져서도 안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이 연대하여 확고히 다져졌을때 범죄로부터 우리의 안전은 확보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경찰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민의 생활안전에 최역점을 둔 치안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일상생활의 보장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못합니다만 강, 절도, 폭력배등 군민의 일상 생활을 불안 하게 하는 강력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해 퇴폐, 낭비, 사치, 허영에 편승한 범죄행위에 대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범죄를 추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법과 질서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며,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질서의식의 정착을 위해 지역정서에 맞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두번의 형식적인 행사와 캠페인, 구호만 으로는 청소년 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성을 다하여 어린나무를 기르듯, 충절의 고장답게 예절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기관단체와 관심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해 범죄로 부터 격리되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보호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예산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 하였습니다 만 기대에 못미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구석 구석 까지 찾아서 봉사하는 참신한 경찰의 면모를 보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禮山教育의 새해 施策 方向

忠清南道 禮山教育廳 教育長 白 仁 基



多事多難했던 甲戌年이 地球村 곳곳에 巨大한 變化와 改革의 발자국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눈부신 햇살이 온 누리에 充滿한 乙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거둔 알찬 結實과 豐盛한 收穫을 決算하고 가슴 뿌듯한 所望과 설레이는 期待로 새로운 비상의 나래를 힘차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는 電光石火처럼 빠르게 變化 發展 하리라 예측되며 이에 能動的으로 수용하면서 繁榮의 民族史的 課業을 成就하기 爲해 모두의 力量과 意志를 집결시켜야 할 해입니다.

教育도 「世界로! 未來로!」 꿈을 펼치며 地球村 구석구석을 힘차게 누빌수 있는 主役인 有能한 人間育成을 爲해 禮山 教育의 施策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여 推進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道德的이고 民主的인 人間教育을 持續的으로 推進하겠습니다. 우리는 最近 衝擊과 戰慄을 금할 수 없었던 反人倫의 事件을 바라보며 우리教育에 대한 새로운 省察과 더불어 現代社會의 價值沒落과 規範의 解體가 가져온 苦痛을 뼈아프게 體驗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學校教育의 全領域에서 汎教科的으로 道德教育을 강화할 것이며, 學父母와 社會의 바른 教育觀 定立을 爲해 學父母 教育과 地域社會人士 研鑽活動을 持續的으로 推進하겠습니다.

둘째, 國家 競爭力을 높이는 創意力 培養에 힘쓰겠습니다. 科學技術教育의 與件을

造成하고 探究, 實驗 중심의 敎授-學習 전개로 思考力을 伸張시키며 敎育공학기기를活用한 授業方法의 科學化에 주력하겠습니다.

세째, 第6次 敎育課程 適用에 對備하겠습니다.

第6次敎育課程은 從來의 中央集中의인 敎育課程의 성격을 벗어나 市·道 敎育廳과 單位學校의 自律과裁量이 尊重 編成 運營되므로 敎師들의 自律의 研究, 研修風土를 活性化시키기 爲해 敎科協議會 運營을 積極 支援하고 敎員研修時에 敎科敎育 深化課程에 重點을 두겠습니다.

네째, 信賴받는 스승像 實現에 努力하겠습니다.

敎員으로서의 專門의 資質과 權威를 높이고 和睦한 職場 雰圍氣 造成과 優秀 敎員 發掘 表彰 등 敎員의 士氣振作에 努力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敎壇改革을 통한 敎育의 質 提高에 힘쓰겠습니다.

敎育 競爭力은 敎授-學習方法의 革新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는 確信 아래 敎壇授業 改善을 爲한 授業研究大會를 開催하고 探究力과 思考力을 키우는 個別學習 中心의 形態로 轉換하는데 획기적으로 財政 支援할 계획입니다.

以上 다섯가지 施策外에도 地方化 時代 地域發展을 爲한 人材育成 차원에서 '내고장 學校다나기 運動'과 '學校敎育發展協議會 運營'平生敎育 基盤 造成을 爲한 讀書의 生活化 敎育과 自律獎學이 정착되도록 推進 할 것이며 各 學校(幼稚園, 初, 中)에 繼續的으로 均衡있게 財政 支援하여 모든 學校가 교부 發展할 수 있도록 支援行政에 力點을 두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한 成就의 보람으로 自足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빌며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거듭 祝願합니다.

秋史金正喜의 濟州流配

洪 淳 晚

濟州島史研究家
漢拏日報主筆

목 차

1. 秋史의 시련과 藝術
2. 秋史의 到配와 그 背景
3. 당시 濟州사정과 李源祚牧使
4. 의리의 交感
5. 秋史가 남긴 藝術
6. 귀양은 풀렸으나

1. 추사의 試鍊과 藝術



秋史金正喜의 濟州島유배는 그의 일생을 통한 최대의 시련이기도 했지만 그의 예술을 꽃피운 최대의 結晶期이기도 했다. 만약 秋史의 일생 가운데 제주도 유배가 없었다면 그의 일생에 어떤 변화,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만큼 秋史의 제주유배는 그의 일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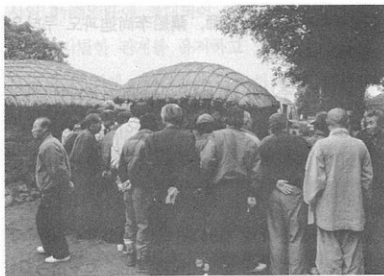
秋史의 유배는 또 그의 일생뿐 아니라 제주도에 도태놓을 수 없는 문화의 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필체를 개발할 정도로 조선시대를 통한 서도의 대가였으며 實學과 淸朝文學을 받아들인 大經學者요 金石學者로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9년에 걸친 濟州謫居를 통하여 제주의 선비나 자제들에게 실학과 수학, 천문학 등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서화를 비롯하여

예술중흥의 불을 붙여 놓았다. 게다가 폐쇄의 섬 문화에 秋史라는 巨木의 다리를 놓아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의 제자 藕船 李尚迪를 통하여 중국의 淸朝文化와도 교류의 길을 터놓았다.

그가 불 붙인 새로운 학문과 예술은 그뒤 더욱 과급 발전하면서 한 시대의 유배문화를 개화시키고 마침내 개화기의 제주문화를 태동시키기에 이른다. 지금도 추사가 뿌리고 심은 문화와 예술은 제주의 예술 문화 곳곳에서 움트고 자라 맥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秋史의 到配와 그 背景



秋史金正喜가 제주도에 유배된 것은 1840년(헌종 6년) 9월이었다. 尹尚度 尹翰模 부자의 옥사에 연루된 죄목이었다.

그보다 10년전인 1830년(순조 30년) 8월 前臺諫 尹尚度와 그의 아들 尹翰模가 상소를 올렸다. 戶曹判書 朴宗薰, 前留守, 申緯, 御營大將 柳相亮등이 行大護軍 金銘에게 아부하여 자의로 국용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것이였다. 이 상소사건으로 尹尚度부자는 楸子島에 정배되고 金銘 海南縣에 안치되었다.

그뒤 純祖가 죽고 憲宗이 즉위하였는데 1840년 8월 大司憲 金弘根이 尹尚度 홍소사건을 다시 성토하고 나섰다. 이 사건이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尹尚度부자는 처형되고 연루자들이 국문을 받고 혹은 장사되거나 혹은 유배되는 이른바 庚子獄事가 일어난 것이다.

이때 金正喜는 尹尚度부자의 상소문을 기안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본인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이에 연루된 前參判 金陽淳등이 옥사하는 바람에 그 혐의를 밝힐 길도 없게 되었다. 金正喜는 이 사건으로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뻔 했으나 동학친구인 右議政 趙寅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간신히 減死조치되어 大靜縣에 위리 안치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 55세였고 刑曹參判의 자리에 있을때였다.

金正喜는 그해 9월 27일 이른새벽 全羅道 梨津(海南)을 출발 그날밤 제주 禾北鎮에 도착하였다. 그날밤은 禾北鎮에 묵고 다음날 濟州성내로 들어와 배에서 알게된 前吏房 高漢益家에 묵었다. 다음날은 폭풍이 불어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1일 아침 州城을 출발 그날밤 형지인 大靜城에 도착하였다.

大靜에 도배된 秋史는 처음 東門안 막은골 校理 宋啓純家(大靜邑 安城里 1657-1)에 적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몇년 격거한 뒤 秋史는 그 이웃에 있던 姜道淳가(大靜邑 安城里 1661-

1)로 적소를 옮겼다. 그 뒤에도 秋史는 安德面 倉川里, 同 沙溪里 등에도 적거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 머무는 정도였고 주로 이 姜道淳가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濟州사정과 李源祚牧使

秋史가 大靜에 적거해 있는 9년동안 濟州牧使는 여섯사람이나 갈린다. 秋史가 도배할 당시는 具載龍목사였는데 1840년 9월 英國배 한척이 加波島에 무단정박 가축을 약탈하고 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는 추사가 도임한 다음 해인 1841년(헌종 7년) 윤3월 大靜縣監 姜繼遇와 함께 파면되었다.

뒤를 이어 李源祚, 李容鉉, 權稷, 李宜植, 張寅植목사 순으로 도임하고 있다. 大靜縣監도 역시 여섯사람이나 바뀌었다. 姜繼遇로부터 高性奎, 安允沆, 池若淵, 韓挺駟, 金始遠현감들이 그들이다. 秋史는 이미 成均館大司成과 兵曹, 刑曹의 參判등 고위관직을 지내고 서도나 학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 터였으므로 목사나 현감등 현지수령들로부터 박해나 학대를 받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도 李源祚목사와는 각별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擬窩集」 22권의 저서를 내는등 문학과 학문에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이었다. 大靜까지 직접 찾아가 추사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특히 추사가 적거했던 大靜城 막은골은 그보다 앞서 光海君때 桐溪鄭蘊이 적거했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협의 끝에 이곳에 鄭蘊을 배향하고 그의 얼을 기리기 위한 「松竹詞」를 세우고 또 「桐溪鄭蘊先生謫居遺墟碑」도 세웠다. 이때 松竹詞의 현판은 직접秋史가 썼다. 그러나 그뒤 興宣大院君때 서원철폐령이 내려면서 松竹詞도 철해되었는데 현판도 유실되고 말았다. 鄭蘊遺墟碑는 그뒤 保城국민학교 정문앞으로 옮겨졌을 뿐 지금도 찾아 볼 수 있다.

4. 義理의 交感

秋史는 제주적거중 小癡許維와 긴밀한 교유가 이뤄지며 草衣禪師, 藕船李尚迪과도 두터운 우정을 다진다.

小癡는 추사가 禮山 본가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도 함께 있던 사람이다. 추사가 도배된 이듬해인 1841년(헌종 7년) 2월 제주도를 찾아와 추사적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1843년(헌종 9년) 7월, 1847년(헌종 13년) 등 세차례나 추사의 적소를 찾아 몇달씩 함께 묵으며 사사를 받고 있다.

소치는 누구보다도 빈번하게 추사적소를 왕래하면서 추사를 가까이 모셨고 그의 근황을 서울이나 추사의 친지들에게 전하는 등 중간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그가 임금을 알현하였을때는 추사의 제주적거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추사의 석방이 실현된데는 그의 이같은 노력도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草衣선사는 일찍이 茶山 丁若鏞에게 경학과 詩書등을 배워 높은 식견을 지닌 사람이 었다. 30세때 우연히 秋史와 만나 알게 되면서부터 추사의 黔湖別莊에 초대되어 여러 제자들과 사귀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小癡를 秋史의 門下에 가서 배우도록 한 것도 따지고 보면 草衣의 배려였다.

추사가 제주에 안치되자 그는 海南 大興寺에 머물면서 소치로 하여금 자주 제주를 왕래하도록 하고 그 편에 추사의 까다로운 식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정갈한 饌需과 茶啖등을 마련하여 탁송했다. 뿐만아니라 적거중에 추사부인이 죽어 상을 당하였을 때는 스스로 바다를 건너 추사를 위로하기도 하였다.

또 추사는 歲寒圖를 그려 보내준 일화로 유명한 藕船 李尚迪과도 깊은 신의를 맺보게 한다. 추사의 문인이었던 李尚迪과도 깊은 신의를 맺보게 한다. 추사의 문인이었던 李尚迪은 그가 역관으로 중국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을 기회로 사제간의 의리를 잊지 않고 北京에서 「皇朝經世

文編」 120권등 귀한 책들을 구하여 귀양살이 하는 추사에게 두번씩이나 보내 주었다.

이에 감동한 추사는 마침내 歲寒圖를 그려 그에게 답례로 보낸 것이다. 추운 歲寒이 지나도 오히려 변하지 않고 푸르름을 보여주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여전한 모습을 두사제간의 불변의 신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추사는 왕경에서 천리밖 낙도에서 고독한 귀양살이를 하였지만 추사를 아끼는 제자나 동문 그리고 많은 친지들의 우의와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의리와 뜨거운 격려가 추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추사의 예술을 승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5. 秋史가 남긴 藝術

秋史의 濟州謫居 9년(1840~1848)은 무엇보다 그의 書學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할 것이다.

秋史는 이미 6~7세때부터 그의 立春帖을 본 朴齊家나 蔡濟恭이 예견했듯이 學藝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리라는 것이 알려졌던 사람이다. 제주에 유배될때는 이미 추사는 篆·隸·楷·行·草등 모든 서체에 통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문에서는 曾祖인 月城尉金漢藎의 松雪體와 石峯體, 祖父인 金頤柱의 東國眞體(晉體)등에 대한 서법교육을 마치고 있었으며 또 翁方綱 阮元등 清朝의 書論筆訣등을 두루 거친 다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秋史는 추사연구가들이 논평하고 있듯이 清朝考證學의 난만한

발전 결과로 출현한 書道金不學 즉 碑學의제과 이론을 겸수하고 이를 타고난 예술의 천품으로 서도에 구현해내니 이것이 이른바 秋史體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다. 秋史體는 곧 碑派 書學의 이상적인 경지를 이룩한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朴珪壽는 「題俞堯仙所藏秋史遺墨」에서 秋史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秋史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도 오직 董其昌에 뜻을 두었고 中藏(스물네살 燕京을 다녔은 후)에는 覃溪翁方綱을 좇아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리고 나서 蘇東坡와 米芾를 따르고 李北海(唐의 李邕)로 변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굳세지더니 드디어는 歐陽詢의 神髓를 얻게 되었다. 만년에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濟州 유배 후) 부터는 남에게 구속받고 본 뜨는 일이 없었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一家를 이루게 되니 神이 오는 듯 氣가 오는 듯하며 潮水가 밀려오는 듯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 역사적이며 필생의 작업을 제주유배를 통하여 완성해냈다고 할 것이다.

그는 書法 書體의 연구개발 외에도 여러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펴고 있다. 지금 국보 제18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명화 「歲寒圖」도 1844년(헌종 10년) 大靜適所에서 그린 文人畫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자 李尚迪이 중국에서 桂復의 「晚學集」 揮敬의 「大雲山房集」, 「皇朝經世文編」등 소중한 책들을 구하여 보내준데 대하여 깊이 감동하고 답례로 그린 것이다. 李尚迪은 이 그림

을 이듬해 다시 중국 北京으로 가지고 가서 章岳鎮·趙振祚등 清朝의 명사 16명의 讚詩를 받아 붙이고 있다. 그뒤 뒤 이 그림에는 제자 金奩準의 讚辭, 吳世昌·李始榮의 배관기둥이 덧붙여지고 있다.

서예가 弘岡 李奉昊씨는 지금 大靜鄉校뜰에 있는 金奩와 歲寒圖의 소나무기둥이 너무나 흡사하다고 지적 추사가 이곳에서 시사반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정향교 東齋에는 추사가 쓴 현액 「疑問堂」이 지금도 그대로 걸려 있다.



추사는 적거중 수많은 유물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내륙지방과 日本등 해외로 흘러 나갔고 지금 도내에는 그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는 제자 朴季詹에게 써준 병풍 「國詞人 朴季詹」을 비롯하여 金萬德이 의손 金鍾周에게 써준 「恩光衍世」등 額簇子 병풍등이 있으며 磨崖刻, 비문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秋史는 또 제주에서 論說, 時, 記文, 書牘등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阮堂 先生 全集 下卷에 수록돼 있는 가운데도 「夫人(禮山李氏)에 대한 哀逝文」, 「瀛洲偶吟」, 「年前禁水仙花

「小遊仙詞」, 「馬廐」등 제주와 관련이 있거나 제주에서 작성한 것들이 50~60편을 넘고 있다.

제주적거 9년동안 추사는 제주의 자제들에게 학문과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蘇齊 金九五(濟州) 慈杞 朴季瞻(郭支) 仙茶 姜道渾(大靜) 등은 재질이 뛰어나 각별히 정성을 쏟아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추사보다 앞서 일찍 요절하고 말았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 귀양은 풀렸으나...

秋史 金正喜는 1848년(원종 14년) 12월6일 마침내 방면되었다. 추사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13일만인 12월 19일이었다. 그는 이듬해(1849년) 1월7일 大靜適所를 출발 귀가 길에 올랐다. 제주에서 며칠을 묵고 海南 大興寺등을 거쳐 서울집에 도착한 것은 1월 그믐께였다. 제주적거 만8년 5개월만이었고 그의 나이 64세였다.

추사는 서울에 돌아간 다음에도 1851년(철종 2년) 7월2일 또다시 咸鏡道 北靑으로 유배되었다. 귀양에서 풀린지 2년만의 일이었다. 그의 친구인 領議政 權敦仁과 결탁 眞宗桃禮論을 배후에서 제창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때의 유배는 1년남짓만인 그 이듬해(1852년) 8월14일 權敦仁과 함께 풀리게 된다. 추사나이 67세였다. 추사는 전후 모두 10년동안의 귀양살이를 치른 셈이었다.

추사는 그 뒤로 정치나 관직에는 아예 담을 쌓고 멀리 했으며 오로지 학문과 예술에만 정진했다. 그러나 귀양에서 풀려난지 4년남짓만인

1856년(철종 7년) 10월 10일 추사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향수 71세였다.



지금 추사가 적거했던 南濟州郡 大靜邑 安城里 1661번지에는 지난 78년부터 유적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秋史 金正喜 先生 謫居 遺墟碑」, 謫家, 秋史 紀念展示館등이 건립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추사의 유물이나 유목진품등은 구할 길이 없고 전시관에는 추사의 서화, 탁본이나 영인본등 2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년에 한번 일출까 말까한 불후의 예술가요 학자인 秋史가 9년동안이나 제주에 적거했다는 것은 제주도로서는 다시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할 것이다. 그 공헌 그 영향이 당시는 물론 지금도 제주의 문화예술속에 배어 흐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秋史論：書法과 歲寒圖

文 基 善

濟州大學校 人文大學長

1. 金正喜：1786年(正祖 10丙午) ~ 1856年(哲宗7丙辰)，6月3日 忠清道 禮山 鄉邸에서 父 魯敬 母 俞氏(郡守 俞鏞柱 女)의 長子로 出生，字는 元春 號는 阮堂，秋史，秋齊，禮堂，詩菴，覃研齋，果坡，果老 등 百餘號). 本貫은 慶州. 6歲 春書帖을 朴齊家(字 次修，號 楚亭，貞菴. 我詩文 四大家)先生이 보더니 내가 장차 가르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15歲로부터 사사받기 始作했다. 43歲(1819年)에 문과에 급제 병조참판에 이르고，中國學者들로부터 考證學을 도입 金石學體系를 세우고 진흥왕 순수비 등을 고증한 지대한 공이 있으며 詩，文，文人畫，書藝로는 獨創의인 秋史體를 이루고 隸書，行書의 名筆家이고 著書로는 阮堂集 金石過眼錄，實事求是論 등이다. 中國文人과의 交流는 24歲 때 10月 28日 父 魯敬 冬至兼 謝恩使로 入燕하여 曹江，徐松，翁方綱，翁樹培，翁樹崑，謝學崇等과 結交面學했다. 55歲(1840年 庚子 憲宗 6年 9月 20日 右議政 趙寅永의 營救로 減死 濟州 大靜에 園籬 安置되고 63歲(1848年 憲宗 14戊申 12月 6日)에 放送되까지 9年間 제주 유배 생활 동안에 모충圖(유배도중 남원에서)，歲寒圖，無量壽閣，長壽山房，水仙花室，詩境軒 등을 제작하였고 家門과 親知에게 보낸 간찰들은 그 당시 제주의 풍속과 자신의 주변을 소상히 그려 낸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유배중에 직접 간접으로 秋史와 교류한 분들은 李鶴秀(추지도 안치)，權敦仁(이조참판)，趙寅永(영의정)，許小痴，白坡禪師，申觀浩(右水使)，李商迪(譯官)，草衣禪師…… 그리고 島內에서는 그 門下로 蘇齋 金九五，仙茶 姜道揮，慈杞 朴季(葵)詹 등 많은 사람들이 그 文氣 書氣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點劃이라는 것은 손에서 생기는 것이다. 손이 그것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면 점획은 陰에 속하는 것이 되고 손이 그것을 밀어내어 밖으로 내치면 점획은 陽에 속하는 것이된다.

點畫者 生於手者也 手挽之向於身 點畫之屬乎陰者也 手推之而摩諸外 點畫之屬乎陽者也.

한번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것으로 손이 능히 점획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를 버리고는 할 수 없다.

一推一挽 手之能爲點畫者 如是 舍是則非所能也

이런 까닭으로 음획은 넷인데 側, 努, 掠, 啄은 모두 오른쪽으로 돌려서 동남쪽으로 움직여 나간 것이며, 양의 획 넷은 勒, 趯, 策, 策은 역시 왼쪽으로 돌려서 동남쪽으로 움직여 나간 것이다. 是故陰之四畫 側也 努也 掠也 啄也 皆右旋之 運於東南者也 陽之畫四 勒也 趯也 策也 磔也 亦左旋之 運於東南者也

우리 팔이 몸의 서북쪽에서 나 있는 까닭으로 능히 동남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서북쪽으로 움직이어 나간다면 될 수 없을 것이다. 억지로 해서 비록 엉터리로 괴상하게 마구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吾之手生於身之西北 故能卷舒於東南 若運於西北 弗能也 強而行之 縱誦柅橫生 君子不由也

結構가 원만한 것은 篆法과 같고 나부끼듯 상폐한 것은 章草와 같고 흥측하고 험상궂어 두려운 것은 八分과 같으며 안전하고 조용하게 들고 나는 것은 飛白과 같고 절개를 굳게 지키어 특별히 우뚝 솟은 鶴頭와 같고 짙은 획이 가로 세로로 뻗어남은 古隸와 같아야 한다.

結構圓滿如篆法, 飄颻灑落如章草, 凶險可畏如人分, 窈窕出入如飛白, 耿介特立如鶴頭 舊枝從橫如古藪

점은 반드시 거둬야 하니 긴박하고 무거운 것을 귀히 여기고, 획은 반드시 끌어야 하니 뽀뽀하고 느린 것을 여긴다. 側은 붓을 평평하게 할 수 없고 勒은 그 붓을 누일 수 없다. 반드시 붓봉이 앞서 나가야 한다. 努는 마땅히 끝지 않아야 하니 끝은 작은 힘을 잃는다. 趯은 반드시 붓봉을 남겨 두어서 형세를 얻은 다음에 붓봉을 끌어내리면서 형세가 붙곤 치솟아 우뚝 서게 해야 한다. 策은 반드시 채찍을 치는 듯 거둬야 하며 掠은 반드시 붓봉이 왼쪽으로 빠져 날카로와야 하고 啄은 반드시 붓봉을 뉘어서 급히 후리쳐야 하며 磔은 반드시 붓을 떨어 밖으로 피어나게 뜻과 같이 된 다음 서서히 이에 뿔아 내진다.

爲點必收 貴緊而重 爲畫必勒 貴沒而遲 側 不得平其筆 勒 不得臥其筆 須筆鋒先行 努 不宜直則失力 趯 須存其筆鋒 得勢而出 引鋒下行 勢凸胸而立 策 須仰策而收 掠 須筆鋒左出而利 啄 須臥筆而疾 磔 須戰筆發外 得意徐乃出之

대체로 점은 북(실북) 모서리 같으며 둥글 넓적하지 않도록 하고 모두 변화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三字는 모름지기 위는 평획으로 가운데는 仰획으로 아래는 覆획으로 해야 하니 春主字가 그것이다. 一云 상획은 仰, 중획은 平, 하획은 覆으로도 한다.

夫點要棱角 忌於員平 貴於通變 三須上平 中仰 下覆 春主字是也。一云 上畫仰 中平 下覆。

짧은 획의 근본은 일종의 策법이다. 그 법은 仰필로 붓끝을 대면서 가볍게 들고 나가는것 이니 책적질 하는 형세와 같아서 양끝 머리가 높고 가운데가 내려가게 된다.

短畫之祖 一策法也 其法仰筆建鋒 輕擡而進 有如覆策之藏 兩頭高中下。

從波~는 다섯 번 멈추니 머리에서 한 번 가운데서 세 번 꼬리에서 한 번이며, 橫波~도 다섯 번 멈추니 머리에서 한 번 가운데서 두 번 꼬리에서 두 번이다. 跨이라는 것은 삼면에서 힘이 미쳐와서 손가락을 타고 비스듬히 내려가서 힘이 가득차면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니 세 번 붓이 지나는데 가운데 마치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다. 戰은 떠는 것이니 떨어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서법에 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와 같은 뜻으로 수필이라는 것은 짧은 努이다.

從波~五停 首一中三尾一 橫波~五停 首一中二尾二, 跨三面力到 順指敬下 力滿微駐仰出 三過筆中 又有三過 如水波之起伏 戰 顧也 取顧動徐行之意 書法有堅 音堅也 與堅字同義 堅筆者短努也。

대체로 서도를 전공하는데는 十二종류의 필법이 있으니 곧 隱筆, 遲筆, 疾筆, 逆筆, 順筆, 沒筆, 轉筆, 過筆, 提筆, 啄筆이 그것이다. 무릇 붓을 쓰는데 살리고 죽이고 하는 법은 그욕하게 숨기는 데 있는 것이고 遲筆法은 빠른 데 있으며 疾筆法은 느린 데 있으니 거꾸로 들어가 바로 나오면서 형세를 얻어 보태게 된다.

凡政書之門 有十二種筆法 即是隱筆, 遲筆, 逆筆, 順筆, 沒筆, 轉筆, 過筆, 提筆, 啄筆, 翬筆, 經筆, 凡用筆生死之法 在於幽隱 遲筆法在於疾 疾筆法在於遲 逆入到出取勢如。

調停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묘리를 얻는 것이 모름지기 초서를 깊이 연습해야 하는데 있으니 초서를 얻기는 힘들다. 한 글자는 八面으로 돌려 통하는 것이 內氣이고 한편의 문장법이 서로 비취 응하는 것이 外氣이다. 內氣란 筆畫이 성글고 뾰족함과 가볍고 무거움 굵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니 만약 밋밋하고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氣가 있겠는가.

診候調停 其於得妙 須在功深草 草求難得 一字八面流通 爲內氣 一篇章法照應 爲外氣 內氣 言筆劃 疎密 輕重 肥瘦 苦平板散換 何氣之有

布白은 셋이 있다. 글자 가운데 있는 포백과 글자마다 그 사이에 있는 포백과 글줄 사이에 있는 포백이다.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똑 고르게 해야 한다. 이미 똑 고르게 할 줄 알고 나서야

빠들고 바른 것과 성글고 뻣뻣한 것이 그 사이에 뒤섞여진다.

布白有三 字中之布白 遼字之布白 行間之布白 初學皆須停勻 既知停勻 斜正疎密 錯落其間

글자는 먹을 바탕으로 하니 먹은 글자의 피와 살이 되며 힘을 쓰는 것은 붓끝에 있으니 붓끝은 글자의 힘줄이 된다. 힘줄이 있는 것이라야 돌아보면 정이 생기고 핏줄이 흘러 움직이어 아지랭이 한 가닥이 섰돌며 끊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字資於墨 墨爲字之血肉 用力在筆尖 爲字之筋 有筋者 顧盼生精 血脈 流動 如遊絲一道 盤旋不斷.

書法論에 이르기를 正書는 行書와 草書의 뜻을 사용하고 행서는 정서법을 사용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대체 행서와 초서에 뜻을 두면 붓과 먹은 행서와 초서의 길을 찾을 수 있어서 牽絲를 많이 쓰고 眞書에 이르러서는 使轉을 많이 쓰는데 하나로 합쳐져 돌이 아니며 神氣가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대개 진서는 사전을 많이 쓰는데 사전은 모양과 흔적이 없는 것이며 전사라는 것은 모양과 흔적이 있는 사전이요, 전사와 사전이 합쳐진 뒤에야 완전한 법칙이 될 뿐이다.

書法論云 正書用行草意 行書用正書法是也 蓋行革用意 有筆墨可尋行超 多牽絲 至眞書 多使轉 合一不二 神氣相貫 蓋眞書 多用使轉 使轉者無形跡 牽絲者 有形跡之使轉, 牽絲使轉合之 然後爲完法耳.

붓이 가벼운 쪽은 양이 되고 무거운 쪽은 음이 된다. 무릇 글자 속에 두 개의 곧은 획이 있으면 마땅히 왼쪽은 곱고 오른쪽은 거칠어야 하며 글자 가운데 있어서의 기둥이 되는 획은 거칠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당 고와야 하니 이것이 음양을 나누는 법일 뿐이다.

筆之輕者爲陽 重者爲陰 凡字中有兩直者 宜左細右鹿 字中之柱 宜鹿 餘俱宜細 比份陰陽之法耳

붓을 쓰는 법은 다섯 손가락을 사면으로 성글게 펴서 붓은 식지 가운데 마디 끝에 대고 끌어서 안으로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의 무늬가 있는 곳으로 눌러 밖으로 향하게 하며 중지로 그 결을 걸어 당기며 무명지와 소지로 그 안쪽을 버텨기면 곧 손가락은 힘이 가득하고 손바닥은 텅 비게 되어 굴러 움직여 가는데 자못 민첩하게 된다.

用筆之法 五指疎布四面 置筆食指中節之端 挽而向內 以大指螺紋處 仰而向外 中指鉤其陽 無名指小指距其陰 則指實掌虛 轉運便捷

법은 가히 사람마다에게 전할 수 있지만 정신과 흥치가 일어난은 곧 사람마다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글씨 쓰는 법식이 비록 볼 만하다 하더라도 오래 찾아 즐길 만하지

못하고 흥치가 일지 않은 사람은 글씨의 모양이 비록 아름답다 하나 겨우 글씨장으로 일컬어질 뿐이다.

法可以人人傳 精神與會 則人人所自致 無精神者 書法誰可觀 不能耐久索翫 無興會者 字體難佳 僅稱字匠

글씨 쓰는데는 懸腕, 撥鐙, 布白 등의 법칙이 있으니 내리고 올려서 향배를 정하고 위 아래로 여러 가지 묘한 이치를 서로 들어 맞게 해서 점과 획이 맑고 깨끗하며 典章과 法도가 두루 갖추어져야만 이에 즐길 수 있다. 또한 鍾繇와 索靖 이래로 바꿀 수 없는 한 법칙이 있으니 왼쪽 글씨니 오른쪽 글씨니 하는 것이 이것일 뿐이다. 오른쪽이 짧으면 아래를 가지런하게 하고 왼쪽이 짧으면 위를 가지런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間架結構의 八十餘格이다. 이로부터 쫓아 들어가지 않으면 정신없이 한 획을 긋는 것이고 눈감고 한 번 빠지는 것이니 요즘 속된 글씨장이들 같이 뒤죽박죽 미쳐 날뛰면 모두 못쓸 글씨가 될 따름이다.

書有懸腕 撥鐙 布白登法 俯仰向背 上下照應諸妙 點畫清楚 章法俱備 乃可 且鍾 索以來 有不能易之一式 左右字是耳 右短左齊 間架結構八十餘格 不從此入 妄玷一劃 盲施一波如近日俗臣顛倒猖狂俱是惡札耳.

이상 秋史書法論中에서 기본이 되는 것만을 나름대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3. 阮堂 金正禧 나이 59歲로 제주유배 4년째 되던 해 1844年(憲宗 10年)에 歲寒圖라 제하고 藕船은賞하라 하여 그려진 작품으로 모진 북풍한설에도 깨끗하게 병립한 늙은 松柏의 사뭇간은 하늘을 꿰뚫었고 금새 꺾일 듯이 가로지른 솔가지 아내로 토담집이 있는 황량한 풍경을 간결하게 그린 것인데 우리나라 문인화중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크기는 가로 108cm, 세로 26.2cm의 한쪽 끝에는 格紙에 端正한 楷書體로 제문을 짓고 우선에게 보내어 깊이 감사하는 뜻을 표했던 것이다.

藕船이 지난 해(1843年) 桂末谷(이름은 복, 자는 미곡, 호는 만학)의 晩學集(8卷)과 杼子居(이름은 敬, 자는 子居, 호는 간당 또는 大雲山居)의 大雲集(8集) 二書를 보내어 주고 금년에 또 賀耕藕(이름은 長齡, 호는 耕藕)의 皇朝經世文編(120卷)을 보내어 주니 이런 일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것을 천만리 머나먼 데서 구입하였고 그것도 몇년 걸려서 처음으로

얻었으니 한 때의 일이 아니다.

去年以晚學大雲 二書寄來 今年又以 藕耕文編 寄來 此皆非世之常有 講之千萬里之遠積有年得之 非一時之事也.

또 세상 사람들은 도도하게 오직 권세와 이익만 쫓아가는데 이같이 마음과 힘을 다하면 권세와 이로운 자에게 보내지 않고 도리어 바다 건너 머나먼 데 있는 초췌하고 껌뻑마른 나에게 보내어 주니 세간의 권세와 이익을 추종하는 이들을 太史公(사기의 저자 司馬遷)의 말대로 권세와 이익으로 합쳐진 사람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이 멀어진다고 했다.

且世之滔滔 推權利之是趨 爲之費心費力如此 而不以歸之權利 乃歸之海外蕉萃枯槁之人 如世之趨權利者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 而交疏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권리 중의 한 사람인데 초연하게 스스로 권세 이익 밖에 쫓아 남아 있으니 권세와 이익의 대상으로 나를 보지 않음인가? 태사공의 말이 틀렸는가? 공자가 추운 겨울을 당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뒤에 시드는 것을 안다하였으니 松柏은 사시를 一貫하여 시들지 않는다. 송백은 추운 겨울 이전에도 한 송백이요 추운 겨울 이후에도 한 송백이어늘 君亦世之滔滔中一人 其有超然自拔於滔滔權利之外 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 孔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松柏是貫四時 而不凋者 歲寒以前 一松柏也 歲寒以後 一松柏也.

성인은 특히 추운 겨울을 당한 이후의 송백을 칭찬하였다. 이제 그대와 나와와 관계는 전으로 보아(귀양 전) 더함이 없었고 후로 보아(귀양 후) 덜함이 없었다. 그러나 전 날의 그대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고 이후의 군은 또한 성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인이 특별히 겨울 소나무와 잣나무를 칭찬한 것은 한갓 다른 나무보다 뒤에 시든다는 정조와 굳은 절개뿐만 아니라 또한 추운 겨울에 감람함이 있는 때문인 것이다.

聖人 特稱之於歲寒之後 今君之於我 由前而無加焉 由後而無損焉 然由前之君 無可稱 由後之君 亦可見稱於聖人也耶 盛人之特稱非徒爲後凋之貞操勁筋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

아아 서한(西漢)의 순후한 시대에 汲黯 鄭當時와 같은 현자인데도 성한 때에는 빈객이 많이 모이고 쇠한 때에는 빈객이 모두 떠났다. 저 하비의 翟公이 大門에 방을 붙이어서 “一死一生 交情을 알겠고 一貧一富에 交態를 알겠고 또한 一貴一賤에 交分이 나타나 보인다”고 함과 같은 世道人心을 통탄함과 같은 것을 迫切함이 그가한 것이다. 슬프구나... 阮堂老人은 쓰노라.

嗚呼 西京淳厚之世 以汲·鄭之賢 賓客興之盛 如不忤(卦?) 榜門迫切之極矣 悲夫 阮堂老人書

藕船은 그 해 10월에 冬至使 李晁應의 一行을 좇아 入燕할때 歲寒圖를 챙겨 행랑에 넣어 가지고 갔다.

그는 다음해 정월 22日 오위경의 배부는 연회에 초대되었던 바 주인과 빈객이 도합 19人, 그 자리에서 歲寒圖를 내어 보이고 그대들에 題贊을 요청하였던 바 16人이 이에 응하여 제찬문을 얻을 수 있었으니 더욱 이 歲寒圖는 빛나게 되고 藕船은 이를 모두 合裝하여 한권의 책자로 표구하여 가지고 귀국하여 이것을 海濤千里 제주에 유배중인 恩師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大靜적거소로 보내어 왔다.

그후 이 歲寒圖는 손에서 손으로 전전되다가 日帝때 「李朝에 있어서의 淸朝文化의 移入과 阮堂」이라는 題下 著者인 藤塚隣博士의 손에 들어갔던 바 이를 애석하게 여긴 素釜 孫在馨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한달 남짓 간곡한 요청으로 藤塚博士의 연구실 한 채를 지어주고 이 天下의 至寶는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국보 18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손세기씨가 寶藏하고 있는 막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内浦制時調는 百濟의 가락

— 傳承保存에 努力 —

禮山時友會長 李 起 鳳



内浦制時調는 百濟人의 가락이며 忠淸道民의 노래입니다.
특히 内浦地域에서 傳承되어 오던 이 時調가 점차 인멸의 위기를 맞은 오늘의 現實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禮山文化院의 승고한 정신을 높이 사고 싶으며, 이 지역의 시조인의 한사람으로서 内浦制時調의 계승 발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는해에는 젊은 時調同好人을 많이 養成하여 後世에 길이 전승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만이 최후의 과제다 생각하고 온힘을 쏟을 결심을 하겠습니다.

힘난한 길 傳統工藝

— 工藝人의 각성이 必要 —

禮山傳統工藝同人會長 金 啓 煥



이 地域의 傳統工藝가 힘난한 역경에 처하여 있는것 같습니다.
工藝人 가족이 한들씩 손을 놓는 현실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13年間 지속되어 오던 工藝品 展示會도 마련치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옛솜씨를 익히려는 후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오늘을 되새겨 새 해는 전통의 맥을 잇는 계기를 마련 하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오니,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원하오며 전통공예인들은 각성하여 선인들의 숨결이 아로 새겨진 전통공예품 제작에 보다 정진 할것을 각오하며 새해에 기대 합니다.

새해를 소망하며...

— 스무해를 맞는 역사 —

매현합창단장 양민철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듯한 고뇌와 갈등으로, 어느 순간에는 관객의 갈채... 환희에 빠지는 깊은 꿈속에서 어느덧 한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게 되는걸까.....

문득 영화 "Mission"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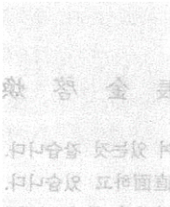
종교와 음악, 서로 다른 분야지만 결국 부딪혀야 하는 엇갈림, 고뇌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점은 어쩌면 그 과정으로 보아 끝에서 만나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부디 '95년에도 살아 남아서 숨쉬는 문화원, 문화단체, 문화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새해를 바라본다. 스무해를 맞는 긴긴 역사속에... 가슴 저리도록 스며오는 음악에의 그리움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매현합창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산문화에 작으나마 보탬

—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

극단 "소란" 대표 복영선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 한해에도 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하고 싶었던일, 또는 했어야했던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조금은 후회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난히도 사고사건이 많았던 94년!

저희 극단 "소란" 또한 성숙하기위한 진통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걱정과 도움덕분에 예산지역에서 좋은 연극을 올릴 수 있었고 또다시 좋은 연극을 보여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불모지인 예산지역서 1986년 자생적 욕구로 태어나 지금까지 메마른 예산문화에 작으나마 보탬이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예산지역에 연극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5년 한해도 돈는 해처럼 함께 예산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진하시길 기원하며 올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秋史의 流配 謫居地 大靜을 探訪 講演도 있어...

漢拏日報主筆 洪淳晩先生

濟州大學校 人文大學長 文基善教授



추사선생 유배 적거지 제주 대정(南濟州郡) 탐방으로 유배생활 9년여동안에 추사선생이 남기는 그의 학술과 예술에 있어 찾아보는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

12월6일 출발해서 동 9일에 돌아왔는데 일정으로 7일은 아침 9시에 숙소인 하와이 호텔

회의실에서 「추사김정희의 제주유배에 남겨놓은 업적과 맥락」이란 주제를 한라일보사의 주필이며 향토사가인 洪淳晩선생의 강연을 한시간 30분동안 듣고 대정의 적거지를 탐방하고 대정郷校를 탐방하여 추사선생의 적거 생활과 이 가운데서도 학예(學藝) 연구한 헌적과 불명의 대표적인 서예작품을 제작 하였음 韻味하였다.

그리고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文基善교수의 「추사의 서법과 세한도」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 추사선생에 대한 새로운 서예정신과 학구적인 인품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9일 돌아와는 일제아에 해남 大興 등을 방문하여 추사와 대흥사, 그리고 추사와 草衣禪師와의 교의등을 새롭게 얻은 지식을 간직하게 하였다.



추사김정희선생의 예술혼을 찾아서

— 제주유배 적거지 탐방 —

박 미 숙

우리고장 「예산」이 예향의 고장이요, 목향의 고장이란 칭호를 받는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대서예가요 실학자로 예술적 천재성을 발휘한 추사선생의 업적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맥을 잇고자 활동하는 예산문화원에서는 매년 추사선생 추모서예백일장을 열어 한국서예문화의 중흥과 무한한 비약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추사 선생의 창조적인 예술성의 이해를 돕고 그 의의를 새롭게 파악하고자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지역민 63명을 동반하여 해남 대흥사를 비롯 「추사선생 제주유배적거지 탐방」이라는 역사적 기행을 가졌다.

추사선생의 출생지인 예산에서는 추사선생의 생애를 조명하고 그의 업적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도의 「추사선생적거지탐방」은 추사선생의 후예가 선생의 자취를 찾아 1백50년만에 다시 그길을 가본다는 것이 가슴뻘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런 탐방을 계기로나마 사라져 가는 옛 선인들의 숨결과 고귀한 정신을 잇겠다는 것이 탐방의 역사적 의의인 것이다.

추사선생의 문화유산을 찾기위한 우리일행의 탐방일정은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물살을 가르며 향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빠른 교통이야 물론 푸른 창공을 날으는 비행기편이지만, 추사선생 유배적거지를 탐방한다는 취지를 살리자면 추사선생의 유배과정을 현재에 재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원측의 주관 때문이었으리라.

제주도는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 이국적인 생태계의 매력으로 하루에도 2천여명의 탐방객들이 성산일출봉, 한라산, 폭포등을 찾는곳이라 평가되고 있지만 추사선생의 유배 당시에는 뚝단배를 타며 파도와 바람과 생을 겨루는 가운데, 유배지로 찾아온 그저 살기힘든 땅이었을 것이다.

신제주시에서 서부산업도로를 타고 서남쪽으로 1시간쯤 향하면 추사선생이 적거했던 강도순의 집(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1661번지의 1)이 있다.

이곳은 추사선생이 유배되어 9년동안 귀양살이하던 유희지로 조선조 헌종 6년(1840)

10월 1일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머물렀던곳.

1978년 조성된 추사선생적거지의 안쪽에는 선생이 적거했던 토가 별채와 강도순이 거거했던 안채가 있었으며 토가 별채에는 꼭 한 사람이 들어가 앉을만큼의 자리를 제외하곤 고동빛으로 세월의 흐름을 전하는 나무책상과 옷장이 있었다.

그 바깥쪽으로는 추사선생적거유허비가 세워져 있고 추사전시관에는 추사선생의 탁본작품을 비롯, 영인본, 병풍 등 2백점이 전시돼 추사만의 멋과 향이 풍기는 유물을 전하고 있었다.

추사에게는 제주도로 유배된 9년동안의 생활이 그의 일생을 통한 최대의 시련이기도 했지만, 그의 예술을 꽃피운 최대의 절정기이기도 했다. 제주의 대정향교를 통하여 제주의 선비나 유생들에게 실학, 수학, 천문학 등 새학문의 길을 개척했으며 그의 제자 이상적으로 하여금 청조문화와도 교류의 길을 터 놓았다는 것은 단순한 명필가로 인식했던 우리에게 추사선생이 실학의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제주지역 향교의 교육기능은 활발했다. 아마도 제주도가 옛선인들의 정치적인 유배지였으므로 육지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대가들의 연고가 높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추사선생도 이미 성균관대사성과 참판등 고위관직을 지내고 서도나 학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터라 제주의 목사나 현감등 현지수령들과는 각별한 관계로 지냈으며, 지방유생들에게도 대정향교에서 학문과 서예를 가르쳤는데 현재 대정향교에서 추사가 쓴 「疑問堂」은 학문적 탐구의욕을 강조했던 추사의 의지를 가름해볼 수 있는 것이다.

국토의 최남단, 그 옛날의 부귀와 영화를 말해주는 대단한 유물과 유적은 없지만, 그 옛날 은둔자의 낙향지 이거나 유배객의 귀양지였을 제주도는 추사선생의 역사적 체취가 서려있고 무형의 문화미, 삶과 사상, 예술혼이 움튼곳임에 틀림없다.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추사선생의 예술혼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었지만 추사선생의 삶과 예술의 길이를 더듬어 볼수 있는 애정어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추사의 예술/ 예산지역의 후세들은 그의 정신적인 가치를 기리고 감취져 있던 유적을 찾기위해 추사선생의 학문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사장되기 쉬운 우리지역 역사의 유산을 찾고 추사예술이 우리의 삶속에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신문사 기자)

윤상도 옥사 10월 1일 연루되어 머물렀던곳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로 10월 1일 연루되어 머물렀던곳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推察

百濟復興軍 慰靈祭典 盛況

— 民軍合同 慰靈굿으로 나라사랑을 다짐 —



왕위 31대 678년동안 그 찬란했던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내포지역의 예국지사가 10여만, 그 의병들이 이 임존성에서 창과 칼을 갈아 일어나 200여 백제성을 탈환하고 왕성 泗北城과 웅주성을 포위하면서 나당군을 위협 했던 성이기도 하다.



임존성은 우리민족의 의병과 승병(僧兵)의 발상지요 민족사에서 의의가 깊은 산성으로서, 예국심에 불타던 부흥군의 홍령(鴻靈)을 위무하기 위해서 예산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금년에 3회째 百濟復興軍 慰靈祭를 지냈다.

백제의 최종왕인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義慈王20年-660-7月18日)하자 분연이 백제를 부흥 하겠다고 일어나 의병 3만여가 응거(雄據)했던 任存城이 대흥과 광시 사이에 있어 사적지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지도층의 불화로 이루지 못하고 3년수개월동안의 용전도 무산된채 663년 11월에 부흥군이 이성에서 옥쇄하다 시피 백제 부흥전도 그막을 내리게된 임존성이기도 하다.



三國時代는 무속신앙이 팽배했던 시대로 금년에는 무당에 의한 의령굿으로 제전을 마련하고, 李仁禾예산군수의 초헌으로 진행했으며 아사달 사물놀이패로 흥을 돋우었고,



임존성에 열린 묘순이 바위 전설을 연극단체 소란에 의하여 마당놀이로 재현하여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넣어주기도 했다.

특히 금년에는 육군 제 1789부대 3대대의 장병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청년회의소에서 햇불 행렬을 주선하고 문화가족 전원이 함께 하여 군·민의 합동 제전으로서 성황을 이루었다.



이 백제부흥군위령제전을 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의 사상을 심어주는 산교육장으로 행사의 의의를 삼아서 예산교육청의 지원으로 中學生 150여명이 참여해서 캠프파이어로 불아성을 이루어 「우리 조상의 체취와 열이 담겨져 있는 임존성을 아끼고 가꾸며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자랑스런 백제문화 유적을 정성어린 마음으로 보존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어 나가자」고 다짐도 했다.

秋史先生 追慕書藝白日場 權威 確立

例年대로 故宅 알뜰 傳統어린 科場서

추사 김정희선생추모 전국서에 휘호대회(白日場)을 추사의 서예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예년과 같이 추사고택 앞뜰에서 5회째 치렀다.



해를 거듭 할수록 전국의 전지역 고루고루 응해오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 서단(書壇)에서 그 권위를 세워가고 있어서 세인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금년에도 조선 신청자가 무려 350여명에 달하고 본선진출서가(書家)가 157명에 달하였다.

10월 10일 충남국악단의 주악으로 시작된 추사공 묘제에 이어서 심사위원이 발표되고 과장에서 심사위원장에 의하여 명제가 발표되어서 휘호는 시작되었다.

주어진 두시간동안에 제작된 작품을 심사위원 東江 趙守鎭(委員長) 彊浦 金相用 反山 宋河璟 宇下 金正財 산돌 趙龍善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금년의 壯元 秋史賞(文化體育部長官賞)에 문인화부문인 靑鹿李翰姑이 차지 하였다. 그리고 次上(忠淸南道知事賞)에는 漢文部에서 書鳳 韓治善, 歸園 宋宙道이며 한글부에서 봄길 盧孝善이 차지 하였다.



次下入賞은 古峰 李善敬, 瑞景 林奎, 德山 愼重範, 志燕 金玉任, 浦巖 金榮實, 道원 金順男이 차지하였다.

特選은 金美蓮, 白種春 廉東基 李榮美 崔英泰 韓萬平 洪恩基(以上 漢文部) 金相浩 이봉희 全龍範 주영란(한글부)

鄭淑謨 崔英成(文人畫部)

그리고 入選은 漢文部에서 40名, 한글부에서 12名, 文人畫部에서 11名이다. 그래서 입상 10명, 특선 11名, 입선이 63名에 달하였다.

入賞作品 展示 —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展示室
— 禮山 示範文化施設 展示室서 첫 展示

內浦制 時調 樂譜 發刊

1. 百濟의 內浦制가 衰頹되고 있는 現實은 남의것을 먼저 選好하는 風潮가 蔓延하고 內浦制의 源 바탕에서도 이러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 實情이기도 하다.
2. 禮山 地方에서는 50餘年前에는 敬友會를 組織해서 時調人들이 李鍾大(當時順天病院長)를 會長으로 擁立하고 그의 넓고 넓은 舍廊房에서 俞煥慶(師範), 李圭龍 父子가 時調를 했고 李起鳳, 李鍾勳(一名 李東南), 金政泰 등이 모이고 內浦制의 名唱인 靑陽의 尹宗善, 保寧의 金容來도 이에 參與해서 時調內浦를 誇示하기도 했다.
3. 이제 내것을 찾는다는 뜻에서 여러 樂譜中에서 內浦制만을 拔萃해서 엮어냄으로서 잊혀져가는 內浦의 時樂先賢의 體臭을 韻味하면서 內浦制의 그 멋과 맛을 불리보고 滿喫해보자는 뜻에서 本院이 刊行한다.

時調人에 一助가 되고 內浦制의 제 모습을 되찾고 禮山의 時調가 자랑스러웠으면 하는 뜻에서 계획한 것이다.

後 記

- 沒 甲戌의 해는 우리 고장이 文化마을로서, 잊을 수 없는 한해인 성 싶다.

이는 國恥에서 經濟의 自主와 獨立運動의 歷史인 열이 숨쉬고 있는 指定된 文化財를 日帝의 殘滓로, 또한 破廉恥(破廉恥)범으로 몰아부치고 고장의 얼굴이요, 자랑거리(文化財)를 隕喪 하려는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쳤던 甲戌 史라 하겠다.

- 또한 고장에 似而非 郷土史家가 나타나서 怪書가 官街에서 亂舞해도 ○○不在, ○○不在 인정 싶어 怪歎의 한해 인정 싶기도 하다.

- 뿐만 아니라 秋史先生追慕書藝百日場의 文化事業이亦是 困亂. 스러웠던 한해라는 뒤통이 찔렸던 한해이기도 하다.

- 秋史謫居遺跡地探訪은 그 意義가 秋史公을 낸 禮山에서 할일을 해낸 일인성도 싶고, 이에 請에 應해 준 漢拏日報社 洪淳晩 主筆님과 濟州大學校 人文大學長 文基善 教授님께 感謝 드린다.

- 밝아오는 乙亥의 새해는 고장의 文化街에 快晴을 合掌한다.

李 恒 馥

禮山文化院報

發行日 1995年 1月 5日
通卷 22輯

發 行 禮山文化院
禮山邑 禮山里 433
TEL. 0458-33-2441番
35-2441番
FAX. (0458) 34-4330

印 刷 수 타 인쇄사
禮山邑 禮山里 740
TEL. 0458-33-2662
